예수님의 용서

성경말씀: 눅7:36-50

배경

복음의 기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병을 고쳤다, 마귀들을 내쫓았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etc.
7장 1-10절,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침, 11-18절: 죽은 사람을 일으킴
8장 26-39절: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분으로 여김.
이것은 구약적 사고의 결과(세상 종교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
이제 우리는 신약적 복을 보아야 한다. 하늘의 복만 주신다.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죄인을 찾아 그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을 찾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36)

바리새인, 시몬: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놀라서 그분을 초청하였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분이 누구신줄 몰랐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초대함.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그분을 판단함. 우리는 어떠한가? ★★★
예수님을 정치, 문화, 지식, 명예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죄인의 등장(37-38)

유대인들의 사회에서의 연회: 여자는 참석 불가
죄인(sinner)은 누구인가?(37절) ★★★
이 여인은 분명히 사회에서 창녀와 같이 불순한 죄들을 많이 지은 사람임에 분명하다.
누구나 다 그녀를 알고 있다. 바리새인(랍비)은 거리의 여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300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음,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음
발에 입을 맞춘다: 극도의 사랑의 표시, 이보다 더 극적인 사랑 표시는 신약성경에 없다.

바리새인의 반응과 주님의 비유(39-43)

자신과 또 거기 있는 손님들로 인해 당황했다. 창피하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과연 대언자일까? 어떻게 죄인을 몰라볼 수 있을까?
시몬의 문제: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자기와 여자와 주님을), 고후4:3-4 ★★★
남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
그는 교만이라는 영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는 육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다.
빚을 준 사람, 빚을 진 사람, 50데나리온, 500 데나리온, 설명, 너그러이 용서해 줌. ★★★
죄인의 정의: 빚을 진 사람, 5, 50, 500이든 상관없다. ★★★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죄를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죄인: 얼마나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가? ★★★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죄인: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난다. 육체적 사망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찾게 하신다.
이 여자의 죄들은 육신적인 것이며 알려져 있다. 시몬의 죄들은 영적인 것이며 숨겨져 있다.
<u>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거운 죄는 마음의 죄이다</u>. 술/담배 하는 것은 저급의 죄 ★★★
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계시에 반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며 이것이 사람을 지옥으로 이끈다. <u>죄들이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u>.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 사람은 죄인이므로 죄를 짓는다. ★★★
당신은 죄인인가? ★★★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는가?
<u>둘 다 갚을 것이 없을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u>.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벧전1:18-19).

많이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한다(43-46): 구원 받은 결과

그리스도의 질문: 용서받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빚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
더 많이 빚진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적게 빚진 자는 항상 남과 비교한다. '나'가 문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근원이다.
시몬: 빚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함. 자기의 명예를 위해 주님을 초청함.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기름도 붓지 않음
이 여인은 눈물을 주고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음, 그리스도만으로 족하다. ★★★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의 척도: 헌금의 척도 ★★★
특별히 리더들의 봉사 개념,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킨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1) 여자는 눈물과 봉사로 죄들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7:50).
어떤 선한 행위로도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엡2:8-9).
은혜는 희생이 있는 사랑이다.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지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희생이 크다.
주님은 이 여인의 눈물과 향유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들의 그 여인의 믿음의 열매요 표시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선한 행위가 있다(엡2:9).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2:26).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는가(47-48)

목사의 설교, 사람들의 설득, 교회에 자주 나와 봉사하는 것, No
주님께서 그녀의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용서를 받는다(롬4:6-8). 48절 ★★★
사람에게는 버려졌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누구라도 용서받는다. ★★★
여자의 구원 경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마음을 찌른다. 그 뒤에 치료한다. ★★★
내 의는 구원과 성화에 일조하지 않는다. 구원받았기에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나온다. ★★★
예수님은 하나님이므로 죄들을 용서하신다(49).

구원받을 때의 효과(50)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자 모든 문제가 풀렸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죄의식에서 벗어난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효과: 평안과 기쁨, 이것들은 마귀가 줄 수 없다.
교회에 오는 것,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에도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 ★★★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신다. 과거를 부수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해도 본인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1830년, 조지 윌슨, 우편물 강도죄로 사형 선고를 받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사면을 허락했으나 그는 사면을 거절했다. 당국자들이 당황해서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대법원장인 마샬에게 물었다.
"사면장은 종이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의 가치는 사면 받을 사람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사면을 거부하면 사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윌슨은 사형 당해야 합니다."

결론

1.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함이다.
2.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 죄 병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는다.
3.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다.
4,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영원한 화평을 얻는다.
5. 이것을 거절하면 결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6. 여기에서 합당한 섬김이 나온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